

## 문광부 “지하전당 강행”

### 박양우 차관 “건축가 철학 존중... 랜드마크, 상징물로 보완”

#### 광주시·의회 반발

문화관광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하구조물 위주의 애초 설계대로 강행할 방침이어서 랜드마크 보완을 요구했던 광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광주시를 방문한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은 박광태 시장을 만나 “전당 설계 당선작은 세계적인 요구했던 광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광주시를 방문한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은 박광태 시장을 만나 “전당 설계 당선작은 세계적인 요구했던 광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광주시를 방문한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은 박광태 시장을 만나 “전당 설계 당선작은 세계적인 요구했던 광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상 위주의 설계를 통한 랜드마크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과 관련, 박 차관은 지상 설계는 불가능한 만큼 상징물을 건립해 랜드마크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협의회와 시민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광주지역 전문가들의 요구를 수용해 문화전당의 연구·교육 기능을 대학 및 연구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전당이 국제 관광상품으로써 랜드마크가 되기를 염원했으며, 설계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전직 문광부 고위 관계자도 7천억원 짜리 건물을 땅속으로 넣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며 지상형으로의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랜드마크 기능 보완 여부를 놓고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정반대의 주장을 펴는 등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당의 지하화 구상은 각본에 의해 추진됐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창의적 발상이 아니다”면서 “문화전당은 시민의 여망대로 지상 형태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들은 “개방형 지하 건축물과 역사문화현장 보존 그리고 도심의 광장과 숲을 조성해 무등산과 어울리도록 설계한 문화전당은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건축물이 될 것”이라면서 “문광부와 광주시는 설계를 두고 진행되는 논란에 대해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할아버지·할머니, 일터로 출발

8일 오후 광주시 남구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일하는 노인 전진대회’에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모두 3천820여명의 노인들에게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문화재 해설, 가사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위지량기자 jrvi@kwangju.co.kr

### 여수엑스포 실사 한달 앞으로...

심 ‘3불가론’ 넘자

## 美는 30회 개최... ‘亞 3연속’ 문제 안돼

정확히 한달 후인 다음달 9일부터 나흘간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 실사가 여수현지에서 열린다.

2010 엑스포 유치전에서 한 차례 쓴 잔을 마셨던 여수는 이번 실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며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여수 엑스포 유치 열기는 뜨겁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일부에서는 ▲동북아시아 3회 연속 개최에 따른 명분 부족 ▲국내의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난립 ▲여수의 자연환경적 요인 등을 들어 개최권 확보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3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BIE 회원국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명분과 논리를 개발해 먼저 ‘불가론’을 잠재우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개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불가론의 첫째는 동북아시아에서 엑스포 연속 3회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2005년 일본 아이치에서 엑스포가 열린 데 이어 2010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를 겨냥해 모로코(탕헤르)는 아프리카 권에서는 처음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엑스포를 무려 30회, 영국은 14회, 프랑스도 12회나 개최했다. 지역적 집중은 문제될 게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국내의 잇따른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준비에 따른 집중력 분산도 여수 엑스포 유치에 부담이라는 우려가 있다.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노력으로 2012 여수엑스포 유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행사는 각각 IOC 위원 등 체육계 인사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다면 엑스포는 엄연히 BIE회원국들의 외교적 판단으로 결정된다. 에너지 분산이 될 이유가 없다.

### Towards Yeosu! Towards the sea of Future

#### 유치홍보 슬로건 확정

2012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슬로건이 ‘Towards Yeosu! Towards the sea of Future’로 최종 확정됐다.

이 슬로건은 박람회 개최지가 확정되는 올 12월 국제박람회사무국(BIE)총

회 때까지 유치 관련 각종 행사와 홍보 물 등에 홍보 문구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는 9일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여수 엑스포 개최 여건과 개최 기본계획이 담긴 실사준비보고서를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홍희기자 redplane@

## “개헌안 발의 유보할 수도”

### 盧대통령 “각당이 차기서 추진 약속했”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공약으로 이뤄진다면 저는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헌법개정 시안발표에 즈음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제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대

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 시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이 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